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유대인들의 임금’(호 바실레우스 톤 유다이온) : 예수님 시대의 유다 사회는 독립에 대한 갈망으로 뜨겁게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로마의 굴레를 벗고 다윗의 시대를 다시 일으키려는 민족적 열망이 응축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호칭을 다른 방향에서 이해합니다. 인간의 해방을 약속하는 정치적 지도자의 얼굴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에게 임금은 권력을 높이 쌓아 올린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기꺼이 자신을 비워 모든 이의 구원을 품으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정의됩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51.75€ • 교무금 400.00€

전례 성가

입당 : 75 (주 그리스도 우리 왕)

봉헌 : 517 (내가 절망 속에)

성체 :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498 (예수여 기리리다)

파견 : 78 (영광의 왕께 찬미를)

특송 : 아무것도 너를 (이두혁 세라피노)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23일)	다음 주일(11월 30일)
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2독서: 구희선 스텔라	2독서: 박수정 클라라
복 사: 변가인 헬레나 / 정아인 레나	복 사: 안태오 마태오 / 강윤아 헬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1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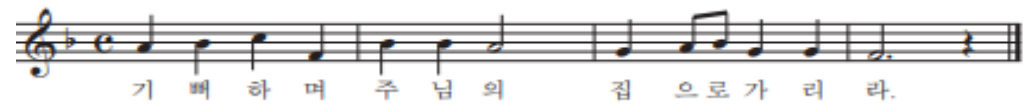
(백)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5,1-3)

그 무렵 1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골육입니다.
2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3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1,12-20)

형제 여러분, 12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14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15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입니다.

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18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맏이입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19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20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

복음 (루카 23,35ㄴ-43)

그때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35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36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38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42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43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연중 시기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
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게 하소서.

3.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전쟁의 난리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굶어살피시어, 그들이 겪는 정
신적 두려움과 육체적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연중 시기를 마무리하며 성서 주간을 지내는 본당 사도직 단
체들을 굶어보시어, 언제나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온 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나라에서 끝없이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